



대한잉크(주), 창립 70주년 기념 노루가족 큰잔치 개최 4500명 노루그룹 가족 참여 “100년 내다보며 발전·성장할 것”

대한잉크(대표 안희석, www.daihanink.com)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23일 서울랜드 삼천리극장에서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등 노루그룹 관계사들과 공동으로 노루가족 큰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료제공 | 대한잉크

노루표 브랜드로 유명한 노루그룹은 1945년 설립된 '대한 오프셋잉크 제조공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도료 분야에도 진출하여 100여개에 이르는 관계회사들이 설립돼 전체 매출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잉크는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70년을 한결같이 국내 인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쇄잉크 공급외에도 한국코닥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친환경 무현상판재 소노라를 비롯해 플레이트 세터, 디지털 판재 및 소모품, 워크플로 솔루션과 디지털 인쇄 장비 등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노사화합 축제의장 '노루가족 큰잔치'

이번 노루가족 큰잔치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다.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등 노루그룹의 총 4500여명의 가족들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가족 노래자

랑, 어린이댄스 경연대회와 이색 포토존,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본 행사에서는 개그맨 번기수씨의 사회로 일렉트릭 현악그룹 밀키워이, 걸그룹 베타멜, 크레용 팝 등의 공연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대한잉크 권주열 상무는 “대한잉크는 국내 최초의 인쇄잉크 메이커로서 광복 후 피폐

하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힘으로 인쇄잉크를 개발해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70년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 대표 잉크 브랜드의 자리를 지켜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지금까지의 발자취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며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